

텍스트 의사소통과 그 모델*

김 휘 택
(중앙대학교)

1. 서론

의사소통이라는 꼭 인간의 말을 다루는 언어학이 아니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담화분석사전에서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항목¹⁾에만 다섯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소통이란 원래 기술적technique인 용어가 아니었다. 프랑스어 역사 사전에 따르면, 이 단어는 라틴어 Communicatio에서 유래하였는데, “아우르는 것mise en commun, 말의 교환échange de propos, 알리는 행위action de faire part” 등을 뜻한다. 프랑스에서 이 단어는 “함께하는 방식manière d'être ensemble”이라는 일반적 방식으로 받아들여졌고, 고대 불어에서부터 사회적 관계의 특정한 방식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²⁾

이러한 의미들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 사용되었다. 언어학에서, 의사소통 모델은 로만 야콥슨Roman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0-327-A00510)을 받아 연구되었음.

1) P. Charaudeau, "Communication", in *Dictionnaire d'analyse du discours*, P. Charaudeau et al, Paris, Editions du Seuil, 2002, p.108.

2) *Ibid.*, pp.108-109.

Jakobson이 제시한 모델³⁾이 그 기반이 된다.⁴⁾ 야콥슨의 모델은 칼 빌리의 삼위일체 모델(modèle triangulaire⁵⁾)에 영향을 받았다. 삼위일체 모델은 표현 expression, 알림appel, 재현représentation 세 가지 언어 기능으로 구성된다. 야콥슨은 이를 발전시켜서 의사소통 모델의 각각의 요소에 감정표시기능 émotive, 명령적 기능conative, 지시적 기능référentielle, 시적 기능poétique, 메타언어적 기능métalinguistique, 친교적 기능phatique을 부여하였다.⁶⁾ 이 모델은 초기 정보 전달에만 무게를 두었던 의사소통의 모델들에 비해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관계와 메시지의 역할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할 수 있다.

언어학에서는 많은 의사소통 모델들이 야콥슨의 모델을 바탕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파롤의 언어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화자들의 관계에도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를 도식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야콥슨의 모델은 의사소통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구어만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 본고와 같이 텍스트를 의사소통의 입장에서 연구할 때는, 야콥슨의 모델을 이용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해야하는 난제가 존재한다.

본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네 가지이다. 우선, 텍스트 의사소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간 구조주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던 텍스트 연구가 발화 언어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나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텍스트 화용론이 구어 중심의 화용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차이들이 바로 그 이후에 전개될 연구들의 주된 테마

3) R. Jakobson, *Essai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63, p.214.

4) 크리스티안 바이론Christian Baylon과 그자비에 미뇨Xavier Mignot는 야콥슨과 그와 같은 견해를 갖은 언어학자들이, 화용론pragmatique의 연구 대상을 의사소통의 효과들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야콥슨이 정의한 의사소통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관계들이 포함된다. 그는 의사소통의 모델을 작성하면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메시지를 매개로 형성하는 관계들을 중시했다. C. Baylon et X. Mignot, *La communication*, Paris, Nathan, 1994, pp.77-78. 이 의사소통의 모델은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가 모두 관여하는 전체적인 형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는 야콥슨의 모델이 빌리의 모델보다는 진일보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R. Jakobson, *op.cit.*, 1963, p.216.

6) *Ibid.*, p.220.

가 될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야콥슨 모델을 텍스트 의사소통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일이다. 그 중 첫 번째 문제는 야콥슨 모델에서 대화자들은 대칭적symétrique인 위상을 가지지만, 텍스트 의사소통에서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구어에서 두 대화 주체들은 한 대화 공간 안에 자리하며, 소통의 실패가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하지만 텍스트의 경우는 언어 행위 주체들 사이에 이러한 대칭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와 더불어, 텍스트 의사소통에서 강조되는 독자의 위상에 대해 그 특징과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의 한 방향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런 대칭적이고 즉각적immédiat인 대화 상황이 불가능 할 때, 의사소통의 축이 되는 지시référence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텍스트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대화자와 대화 상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서로 다르다. 이런 형태의 의사소통이 인정받으려면, 지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를 의사소통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구조주의에서는 텍스트 내부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지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간 지시 연구들은 구어 의사소통의 입장에서 정리되었기 때문에, 텍스트의 지시 문제를 이전 이론들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지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찾아 텍스트 지시에 대한 대략적인 이론적 경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두 논점을 정리한 후 해야 할 작업은 텍스트 의사소통 모델을 구성하는 일이다. 야콥슨이 제시한 대화자, 대화상대자, 메시지가 구성하는 삼각 모델은 그 대칭적 성격 때문에 텍스트 의사소통 모델에 직접 적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의사소통 모델들을 참고하고, 앞에서 말한 논점들을 고려하여 텍스트 의사소통만의 고유한 모델을 구성해 볼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연구들은 그 모델이 수용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텍스트 의사소통의 모델은 물론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모델들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고, 앞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재현하기 위한 수정의 작업도 부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구 대상으로서 텍스트가 발화 언어학 혹은 화용론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지 살펴보겠다.

2. 발화 언어학에서의 텍스트 - 텍스트 화용론

텍스트는 발화 행위의 결과이다. 그러나 발화 언어학이나 텍스트 화용론은 텍스트 언어학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왜냐하면, 텍스트 언어학 *linguistique textuelle* 때문에 텍스트 연구는 급속하게 구조적 관점의 연구 경향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텍스트 화용론이라는 용어는 최근 여러 학자들의 연구 지향점이 되었다. 장 미셸-아담⁷⁾, 프레데릭 네프⁸⁾Frédéric Nef, 프랑시스 자끄⁹⁾Francis Jacques와 움베르토 에코¹⁰⁾Umberto Eco는 ‘텍스트 화용론 *Pragmatique textuelle*’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아담은 독일 텍스트 언어학의 텍스트 화용론 *textpragmatik*으로의 전회에 관심을 가진다.¹¹⁾ 다음 표를 보자.

기술국면	보그랑드와 드레슬러(1981)		브링커(1985)		하이네만과 피베거(1991)	
텍스트 내적	통사론	응결성	텍스트 구조	문법적	통사론	문법적
	의미론	응집성		주제적		의미론
텍스트 외적	화용론	의도성/용인성	텍스트 기능		화용론	기능적
		상황성				상황적
기타	상호텍스트성				인지론, 대화분석	

〈표1〉 독일 텍스트 언어학자들의 연구 경향 정리¹²⁾

- 7) J.-M. Adam, *Linguistique textuelle : Des genres de discours aux textes*, Paris, Nathan, 1999, pp.119-136.
- 8) F. Nef, "Notes pour une pragmatique textuelle: Macro-actes indirects et dérivation rétroactive", *Communications*, n°32, 1980, p.182.
- 9) F. Jacques, "Le mouvement du texte" in *Le texte comme objet philosophique*, J. Greisch éd., Paris, Beauchesne, 1987, p.62.
- 10) U. Eco, *Lector in Fabula*, Paris, 1985, p.7.
- 11) J.-M. Adam, *op.cit.*, 1999, p.120.
- 12) 이성만, 「텍스트 언어학의 방법과 과제」, 『한국학연구』, 23호, 2005, p.14.

〈표1〉을 보면, 텍스트 언어학자들은 텍스트 내부의 의미·구조적 특징을 연구하면서도, 텍스트 외부의 화용론적인 특징과 텍스트의 기능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의도성은 저자 측에 대한 연구, 용인성은 독자 측에 대한 연구, 상황성은 문맥contexte에 관한 연구라고 풀어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어떻게 텍스트 구조 분석을 이론적으로 연결하는가이다.

텍스트의 의도성과 용인성은 텍스트가 매개하는 것이다. 저자나 독자의 의도, 상황성의 문제도 결국 텍스트와 연계해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프랑수와 라스티에François Rasti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텍스트는 심오한 의미의 보관소라기보다는, 일련의 제한사항으로 나타난다. 이 제한 사항들이 해석의 경로를 그려놓는 것이다. 각 독자는 자유롭게 개인의 경로를 따라가고, 자신의 목적이나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텍스트에 의해 지정된 경로를 마음대로 변모시킬 수도, 무시할 수도 있다.¹³⁾

위 발췌문은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좌우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에도 지나친 독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는 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은 텍스트를 중심의 문맥을 강조하는 지침 언어학linguistique instructionnelle에 관심을 가진다.¹⁴⁾ 문맥도 텍스트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며, 텍스트가 중심이 아닌 문맥은 논하기 어렵다. 아담은 다음과 같이 텍스트의 문맥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¹⁵⁾

- A. 모든 문장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항상 문맥이 필요하다.
- B. 문맥은 그 문맥의 접근 가능성에 따라 선택된다.
- C. 문맥은 기억을 함의한다.

A는 모든 문장이 해석되려면 문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문맥이 존재하지

13) F. Rastier, *Sens et textualité*, Paris, Hachette, 1989, p.18.

14) J.-M. Adam, *op.cit.*, 1999, p.121. 여기서 지침instructions 이라고 하는 것은 라스티에의 '제한사항'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15) J.-M. Adam, *op.cit.*, 1999, p.125.

않는다면, 해석자들은 자기가 생각해낸 문맥을 통해서 문장을 해석한다. B는 문맥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여준다. 접근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문맥이 일반적인 문맥보다는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언어상으로 드러나는 문맥이 언어 외적인 문맥보다는 선택될 확률이 높다. C는 문맥이 기억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예전의 텍스트가 지금의 텍스트에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

아담에 따르면, “모든 상호행위는 기억과 이전에 했던 말들에 근거한다. 그리고 상호행위는 기억의 새로운 상태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상태는 이후 어떤 새로운 상호 행위에 바탕이 된다”.¹⁶⁾ 이전에 발화된 발화체^{énoncé}들은 기억을 형성하고, 이 기억은 다음 발화 시에 사용된다. 즉 이전에 발화된 발화체의 총체도 어떤 문맥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문맥 역시 텍스트적인 것이고, 전적으로 언어 외적인 문맥은 선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텍스트 중심의 연구는 구조주의가 그 절정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들이 ‘텍스트만’을 연구했다는 데 있다. 반면에, 텍스트 화용론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되 텍스트의 주체, 지시, 문맥 등도 주요 연구 과제로 삼는다. 이제 텍스트를 외부와 내부로 나누는 이분법과, 텍스트에는 앞도 뒤도 없다는 텍스트 의미의 결정 불가능성은 모두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가능한 모든 상호행위는 텍스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텍스트를 통한 상호행위의 연구, 이것이 바로 텍스트 화용론이다.

3. 텍스트 의사소통과 주체와 텍스트의 관계

1)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황 분리

텍스트 의사소통의 특징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구어 의사소통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텍스트 역시 의사소통의 결과물인 발화체이다’라고 정의 했

16) *Ibid.*, pp.125-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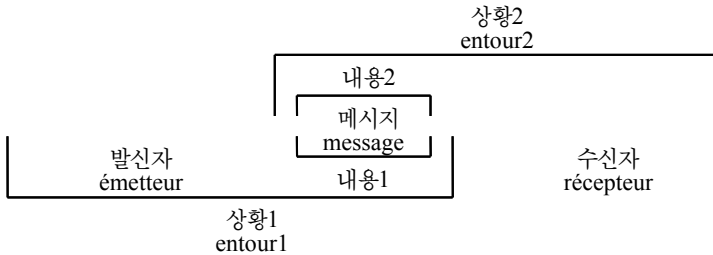
을 때, 다시 텍스트를 담화discours와 구분해야 한다. 담화를 텍스트와 구별하게 되면, 텍스트는 문어, 담화는 구어의 산물로 구분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최근, 담화의 개념은 포괄적이고 경계가 모호하다. 한국에서 담화는 '담론'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때 이 용어는 구체적·추상적인 모든 인간 소통의 산물과 그 소통으로 얻어진 사회의 집단 의식을 지칭한다. 이런 상황에서 용어상 텍스트 위상을 담화와 동일하게 놓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텍스트의 담화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텍스트 의사소통과 구어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텍스트 의사소통의 특징은 텍스트와 관계하는 주체들 간의 비대칭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비대칭성은 구어 의사소통 모델의 대칭성과 대조적인 뜻으로 쓴 것이다. 폴 리코르Paul Ricoeu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대화는 질문과 대답의 주고받기 이다. 그러나 저자와 독자 사이에는 이런 종류의 주고받기가 없다. 저자는 독자에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책은 글쓰기 행위와 읽기 행위를 두 편으로 나누며, 그 양편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없다. 그리하여 독자는 글쓰기의 행위에 부재하고 작가는 글 읽기의 행위에 부재한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독자와 저자 둘 다 없어지는 이중의 소멸double occultation을 초래한다.¹⁷⁾

이와 같이, 텍스트의 저자와 독자의 관계는 구어 대화자들의 관계와 다르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독자와 저자가 모두 없는 상태를 상정할 수도 있다. 리코르의 말대로 저자와 독자는 한 대화 상황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비대칭적이라는 말은 대화 상황 안에서 저자 혹은 독자가 홀로 존재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때 텍스트 이론은 텍스트 자체, 저자, 독자 중 하나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라스티에는 저자와 독자의 비대칭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도식으로 나타내었다.

17) P. Ricoeur, *Du texte à l'action : Essai d'herméneutique, II*, Paris, Editions du Seuil, 1986, p.139.



<도식1>¹⁸⁾

<도식1>은 구어 의사소통에서 메시지, 발신자, 수신자는 한 의사소통 상황 entour에 놓이게 되지만, 텍스트 의사소통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언어학적 상식에서는, 대화자와 대화상대자는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적 합의에 이른다. 텍스트의 경우, 저자의 쓰기와 독자의 읽기가 이 의사소통을 대신한다.¹⁹⁾ 저자의 쓰기와 독자의 읽기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또한 저자와 독자(들) 사이에 의미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다. 발신자(저자)와 수신자(독자)의 상황은 분리되어 있다. 라스티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텍스트를 접하는 상황이 달라지면 텍스트에서 얻는 의미도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그가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원래 다의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⁰⁾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텍스트 의사소통의 모델이 구어 의사소통 모델과 차별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명백하다.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의미의 문제이다. 저자는 독자를 직접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의미는 전적으로 독자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18) F. Rastier, *op.cit.*, 1989, p.51.

19) 이 때문에 연구 분야도 어떤 주체를 다루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문체론은 텍스트 언어학에 가까운 이론들을 전개하지만 저자의 측면을 강조하고, 발화 언어학도 구어 의사소통을 연구의 중심에 두면서, 발화자의 의사 전달 측면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수용미학이나 해석학은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와 텍스트의 관계, 독자의 독서행위를 강조하여 이론을 전개한다.

20) *Ibid.*, p.50.

나 ‘텍스트가 언어행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독자의 이러한 의미 독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독자가 전적으로 저자의 의도를 쫓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언어로 매개 된다는 점에서, 텍스트가 가진 의미 전달 능력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자의 해석을 제한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나 설득이 아닌 텍스트가 가진 언어적 힘이다.

2) 텍스트의 증재 - 독자의 과(過)해석 제한

텍스트가 독자의 과해석을 제한하는 장(場)이라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라스티에는 텍스트가 사회적 실천이며, 그 주체는 사회가 용인하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통해 의사소통에 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²¹⁾ 라스티에는 독자를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독서의 성격들은 독자가 텍스트를 전적으로 재해석하는 것도, 저자의 의도만을 추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 (i) 생산적 독서 *lecture productive*는 독자가 텍스트를 새로운 상황과 지지 대상들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의대로 재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해석자는 텍스트를 일부분 다시 쓰는 것도 무릅쓴다.
- (ii) 기술적 독서 *lecture descriptive*의 목표는 절제된 것이다. 하지만 텍스트가 생산된 최초의 의사소통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텍스트의 내용을 복원하려는 야심찬 시도이기도 하다.²²⁾

리콤프르는 텍스트의 순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 전형상화 *préfiguration*, 형상화 *configuration*, 재형상화 *réfiguration*로 명명하였다.²³⁾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형상화는 일상의 사건으로부터 텍스트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단계이다. 재형상화는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난 후 독자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때 텍스트는 주체와는 아무런 상관

21) *Ibid.*, p.50.

22) *Ibid.*, pp.51-52.

23) P. Ricoeur, *Temps et récit*, tome I, Paris, Editions du Seuil, 1983, pp.85-87

이 없는 객관적인 구조로 정의된다. 재형상화는 텍스트가 독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규정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독자의 단계는 재형상화이다. 이 재형상화의 의의²⁴⁾는 언어행위의 결과인 텍스트가 독자 측면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있다. 리코르는 “텍스트는 텍스트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작품이 된다”²⁵⁾고 했다. 즉, 텍스트의 순환 동력은 텍스트와 독자 단계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텍스트는 독서행위를 받는 수동적 사물이 아니라 독자와 상호행위를 하는 텍스트 순환의 한 주체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현동화actualisation는 전적으로 독자의 행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텍스트가 이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가 가진 지향성 때문이다. 이 지향성이라는 힘은 텍스트가 품고 있는 “도식화schématisation”와 “전통성traditionalité”라는 특성²⁶⁾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단 도식화와 전통성에 대해서 설명하자. 도식화는 텍스트가 갖는 규칙의 총체 같은 것이다. 리코르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패러다임들은 독자의 기대를 구조화하고 이야기된 스토리를 통해 범례화 된 형식적 규칙이나 장르 또는 유형을 식별하도록 독자를 돕는다.²⁷⁾

전통성은 고정된 과거의 유산을 간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의 전통성은 매우 역동적인 의미를 가진다. 리코르는 전통성의 특징이 “혁신과 침전의 유희jeu de l'innovation et la sédimentation”²⁸⁾라고 했다. 전통 속에서 고착된 실체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예측할 수 없이 변모한다. 혁신은 이런 전통의 성격을 반영하는 용어이다. 고정된 예술 장르나 형식도 위반과 저항의

24) 재형상화에 대한 논의는 김휘택, 「폴 리코르의 이론에서 재형상화re-figuration의 개념」, 『한국프랑스학논집』, 74집, 2011, pp.47-64. 참조.

25) P. Ricoeur, *op.cit.*, 1983, p.117.

26) *Ibid.*, p.116.

27) *Ibid.*, p.116.

28) *Ibid.*, p.117.

도전을 받게 된다. 이때 위반과 저항이 전회를 이룰 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굳건히 다져진 기존의 형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때 전통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화와 같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예술 장르로 자리 잡은 경우도 있고, 문학에서 일대 혁명으로 여겨졌던 반소설anti-romain도 지금은 소설의 한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혁신과 침전의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도식화와 전통성은 텍스트가 가진 성격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독서행위와 상호행위를 이루게 하는 힘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독자의 독서행위에 대해 텍스트가 수동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리코르트는 “도식화와 전통성은 즉각 글쓰기의 작업성과 독서의 작업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범주가 된다”²⁹⁾고 했다. 이 말은 도식화와 전통성 자체가 위에서 말했던 재형상화의 단계 자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텍스트의 자체의 이런 역할은 독자의 해석이 자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 텍스트의 열림과 관련하여 텍스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³⁰⁾ 열린 텍스트에 관해서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와 같은 학자의 이론을 참고한다. 그는 독서행위를 또 다른 글쓰기라고 규정했다. 텍스트를 해석하는 독자는 텍스트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읽어내고, 자신의 방법대로 텍스트의 망을 따라간다.³¹⁾ 한편,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텍스트의 열린 성격이 독자의 역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텍스트 역시 자신의 열린 성격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29) *Ibid.*, p.116.

30) 김휘택, 「폴리코르의 설명과 이해관계의 이중검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0집, 2009, p.152.

31) R. Barthes, *Le plaisir du texte*, Paris, Editions du Seuil, 1973, pp.100-101. 바르트는 텍스트가 일종의 직물tissu이라고 정의한다. 이 직물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직조zentrelacs perpétuel”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계속되는 직조에 독자가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 독자는 즐거움을 얻는다. 독자가 텍스트 의미 포착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열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예술가들이 이러한 문제의 함의를 가장 명시적으로 의식하고 있다. 이들은 ‘열림’이라는 요소를 예술적으로 해석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수용하는 대신 창작과정의 적극적인 요소로 포섭시켜 활용하려 한다. 이리하여 작품은 가능한 한 최대한 “열려 있게” 된다.³²⁾

여기서 “창작과정의 적극적인 요소”란 텍스트가 생산되면서 열린 텍스트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에코는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존주의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아니면 가톨릭적으로 또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카프카의 상징을 다양하게 해석해 보았지만 그의 작품의 엄청난 해석 가능성을 모두 고갈시킬 수는 없었다. “열려있는” 한 또는 애매모호한 그의 작품은 소진될 수 없으며 항상 열려 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에서 보편적인 법칙에 기반하고 있는 질서 잡힌 세계는 계속 애매모호함과 다의성에 기반을 둔 세계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중심이 끊임없이 사라지며,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는 여러 가치와 도그마가 끊임없이 의문시 되게 된다.³³⁾

이 같이 작품으로서의 텍스트가 이미 열린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독자가 그 성격을 염두에 두어야 텍스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즉, 텍스트가 독서행위와 관련하여 수동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4. 텍스트 의사소통과 지시의 문제

1) 독자가 현동화actualiser하는 의사소통

위의 “텍스트와 수용자의 상호행위”를 상기하자. 이 상호행위에서 독자의

32) 움베르토 에코, 『열린 예술작품 : 카오스모스의 시학』, 조형준 역, 새물결, 1995, pp.46-47.

33) *Ibid.*, p.53.

역할은 무엇인가에 답하는 것이 독자의 텍스트 현동화를 설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리코르의 미메시스 이론³⁴⁾에서 나타나는 텍스트와 수용자의 상호행위 개념을 통해 독자의 역할을 정리하려고 한다. 리코르는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존의 수용미학과 독서행위이론의 성과를 종합하면서도, 텍스트와 독자, 각자의 역할과 그 역할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어,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독자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는 개입을 허락하기만 하는 수동적 공간이 아니다. 텍스트 의사소통을 완결하는 데에는 독자의 힘이 크지만, 텍스트는 독자의 의지에만 의미의 결정을 맡기지 않는다. 텍스트 내의 이 역동적 성격을 리코르는 “내재성 속의 초월성(*transcendance dans l'immanence*)”³⁵⁾라고 표현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를 함의한다. 우선 텍스트를 내적 구조체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텍스트가 그 자체로 일종의 지향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텍스트가 가진 언어적 전달의 힘은 독서행위가 그 방향성³⁶⁾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텍스트의 단계에서 독자의 단계로의 이행을 리코르는 ‘순환(*cercle*)’이라는 흐름의 일부로 파악한다. 리코르는 이 순환을 “설명과 이해 그리고 이해와 설명의 상관관계”로 풀이한다.³⁷⁾ 이러한 풀이는 텍스트와

34) P. Ricoeur, *op.cit.*, 1983, pp.85-129.

35) P. Ricoeur, *Temp et Récit*, Tome III, Paris, Editions du Seuil, 1985. p.230.

36) 리코르는 이것을 “벡터(*vecteur*)”로 표현하였다. 벡터는 크기와 규모만을 표시하는 스칼라(*scalar*)와 달리 방향성까지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리코르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독서 행위가 경험에 형태를 부여하는 줄거리의 특성에 대한 벡터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가 형상화하는 행위를 다시 다루고 완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줄거리의 통일성을 통해 여러 가지 행동을 이해하는, 즉 ‘전체로 고려하는’ 판단과 형상화하는 행위와의 유사성을 강조한 바 있다.” P. Ricoeur, *op.cit.*, 1983, p.117.

37) 이기언, 「해석학적 순환에 대하여」, 『불어불문학연구』, 74집, 2008, p.308. 설명과 이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딜타이는 설명을 자연과학의 방법론으로, 이해를 인문과학의 방법론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을 적용하였다. 리코르는 설명의 방법을 구조주의적 텍스트 분석에서 찾음으로써 설명의 방법을 인문학에 빌려 올 필요가 없음을 역설했다. 설명의 방식이 텍스트의 구조적 방식에 있다면, 이해는 텍스트를 해석하여 그 대상지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호교류야말로 텍스트의 온전한 의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체재를 갖추는 일이다.

독자 단계의 상호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는 해석이 저자와 독자 사이의 일이 아니라, 독자와 텍스트 간의 일임을 일깨워준다. 텍스트와 독자의 순환은 일방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이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독자가 수행하는 현동화는 텍스트가 지닌 도식화와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 구조화의 역동성을 현동화(actualiser³⁸⁾)하는 것이다. 리코르가 이 단계에서 경계하는 것은 독자가 완결체인 텍스트에 가해지는 우연한 행위나 의미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가적인 작업으로 여겨지는 일이다.³⁹⁾

실제로 독서의 작용보다 텍스트 자체가 가진 힘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 있기는 하다. 『살아있는 은유*La métaphore vive*』⁴⁰⁾에서는 텍스트의 지시 *référence*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독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작품이 세계를 향해 스스로를 초월한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또한 최성민은 『살아있는 은유』와 『시간과 이야기*Temps et récit*』 두 저서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텍스트가 지닌 은유의 힘이 "'말해지지 않은 것'을 시간적 통일성 아래 규합시켜 새롭게 언어 속에서 솟아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⁴¹⁾ 하지만 독서 행위가 없다면, 텍스트의 힘은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제, 텍스트의 내적 힘에 방향을 제공하는 독서행위는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이 힘을 이끌어 가는가에 대답하는 것이 독자의 현동화를 설명하는 마지막 지점이 될 것이다.

텍스트와 독자가 만나면, 지시의 문제를 거론해야만 한다. 독자는 자신의 독서라는 언어행위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상황 속에서 "다시 그리려는"⁴²⁾ 노력을 한다. 이 행동은 저자와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독자가 자신의 생활세계로 텍스트의 힘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지시는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된다. 리코르는 독자의 단계, 즉 재형상화

38) P. Ricoeur, *op.cit.*, 1983, p.116.

39) *Ibid.*, p.116.

40) P. Ricoeur, *La métaphore vive*, Paris, Editions du Seuil, 1975.

41) 최성민, 「은유의 매개와 서사의 매체」, 『시학과 언어학』 제15호, 2008, pp.60-61

42) 김한식, 「이야기, 삶, 주체 - 자기의 해석학을 위하여」, 『프랑스학연구』, 제25권, 2003, p.81.

의 단계를 “역사와 허구가 교차하는 지시”⁴³⁾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말이 함의하는 바는 역사가 사건의 완전한 기술이 아니며, 허구도 완전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중적인 사실이다. 결국 텍스트가 지시하는 것은 일종의 비실재성을 포함해야 한다. 독서행위는 이 비실재성을 한층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리코르의 “생산적 상상력”⁴⁴⁾은 이 경우에 도입될 수 있다. 독자는 텍스트의 언어를 읽지만 텍스트에 없는 내용도 읽는다. 이는 텍스트가 구성한 비실재성을 자신의 실재와 비교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되면 저자의 이야기나 의도는 텍스트에서 한 번 뒤틀리고, 독자에서 한 번 더 뒤틀리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재형상화는 “역사와 허구가 교차하는 지시” 이상의 것이 된다. 이때, 리코르는 가다머의 “적용application”⁴⁵⁾이라는 용어를 내세운다. 독서가 수행될 때 텍스트 안의 비실재성이 단순히 그 자체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실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유appropriation”⁴⁶⁾라는 용어도 적용과 같은 기제를 설명한다. 이는 독자가 텍스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즉 독자가 독서의 내용을 자신의 생활과 결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야기 하려는 독자가 현동화는 의사소통은 독자가 독서행위를 통해서 텍스트와 독서의 단계가 연결되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를 리코르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형상화의 역동성이 그 여정을 끝마치는 것은 오직 독서를 통dans해서
다. 그리고 텍스트의 형상화가 재형상화로 변모하는 것은 독서를 넘어서
au-delà 받아들인 작품으로 인해 알게 된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다.⁴⁷⁾

독자의 현동화는 저자의 의도, 즉 저자의 지시를 읽는 것도, 텍스트의 객관성을 읽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 독자 자신의 삶만 읽는 것도 아니다. 독자의 현동화는 이중의 작업이다. 텍스트의 언어적 객관성에 담겨

43) P. Ricoeur, *op.cit.*, 1985, p.147.

44) *Ibid*, p.229.

45) *Ibid*, p.229.

46) *Ibid*, p.229.

47) *Ibid*, p.230.

있는 비실재성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향하게 하는 역동적인 복합 기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2) 지시의 분리

담화의 지시와 달리, 문장보다 큰 단위로서 담화와 동등한 위상을 가진 텍스트는 그 지시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룬 이론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서두에 제시한 독일 텍스트 언어학자들의 연구 경향은 화용론을 향해 가고 있지만, 화용론에 필요한 현상학적 문제들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지시이론은 구어에 맞춰졌기 때문에 텍스트 의사소통에는 맞지 않는다. 본고에서 다룰 리코르의 이론 역시 지시에 대해 완결된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리코르의 저서들에 나타난 지시 이론들을 종합함으로써 지시 이론의 대략적 실체를 가늠하려고 한다.

우선, 리코르의 『살아있는 은유*La métaphore vive*』를 보자. 그는 지시를 두 가지로 나누고 서열을 두었다.⁴⁸⁾ 문학 작품은 그 내적 구조만으로 작품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문학작품에 있어서는 특히 그 해석의 자유가 확대되기 때문에 텍스트의 언어적 차원의 의미⁴⁹⁾와 발화적 효과는 전혀 다른 지시를 갖게 된다. 리코르는 이를 일차 지시*référence première*와 이차 지시*référence secondaire*로 나누었다.⁵⁰⁾ 두 지시는 별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48) 리코르는 영문으로는 이를 “분리된 지시*split référence*”라고 하였다. P. Ricoeur, “The Metaphorical Process as Cognition, Imagination, and Feeling”, *Critical Inquiry*, 5:1, 1978, p.143.

49) 리코르는 기호들의 체계에서 발생하는 뜻을 “의미*sens*”라고 칭했고, 이 기호들이 체계를 넘어서 지시 대상과 연결이 될 때, 발생하는 의미작용을 “지시*référence*” 혹은 “공시”라고 명명하며 대조적으로 제시하였다. P. Ricoeur, *op.cit.*, 1975, p.274.

50) 리코르는 『살아있는 은유』(*Ibid.*, p.289)에서 일차 지시를 불어로 “*référence primaire*”로 표기하였으나 이차 지시*référence secondaire*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용어 사용을 맞추기 위해서, 유추하여 적어 넣은 것이다. 그의 저서 『텍스트에서 행동으로*Du texte à l'action*』(*op.cit.*, 1986, p.114.)에서는 이차 지시를 “*une référence de second rang*”으로 표시했고, 이 부분의 영문판에서는 “*a second order reference*”(P. Ricoeur, “The hermeneutical function of *distanciation*”, in *See Ricoeur*, 1995, p. 141.)로 번역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맞물려 있다. 일차 지시는 발화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문학 작품에서는 이 일차 지시의 실패는 흔한 일이다. 이렇게 주어진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을 때, 이차 지시가 발생한다. 이것을 리코르르는 의미의 자기 파괴(auto-destruction⁵¹)라고 규정했다. 이는 독자가 문학작품을 읽을 때 문학작품이 언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을 채우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다른 세계(un autre monde)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시 말해 현실에 대한 판단 중지(époché⁵²)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차 지시의 의미는 문장이나 단어들의 산술적인 합으로 추정해 낼 수 없다. 이차 지시에서 발생하는 텍스트의 의미는 문장이나 단어들의 화학적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의 발생은 해석이 하는 역할에 달려있다. 이를 리코르르는 일종의 의미의 혁신(innovation⁵³)이라고 보았고, 이는 텍스트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⁵⁴을 의미한다. 리코르르의 지시의 분리는 저자와 독자의 지시를 각각 논한 것이 아니라 독자의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지시를 논한 것이다. 이는 텍스트 의사소통의 특성인 저자와 독자의 분리 상황과 독자가 현동화 하는 의사소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

『텍스트에서 행동으로*Du texte à l'action*』에서 리코르르가 제시하는 지시 이론에서 주목할 내용은 텍스트 의사소통에서 저자와 독자의 지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저자가 있는 곳에 독자가 없고, 독자가 있는 곳에 저자가 없는 이중의 부재 때문이다. 이 때 텍스트의 존재⁵⁵는 독자가 저자의 의도를 따라 텍스트를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텍스트의 세계”는 “낭만주의 해석학적 입장과 멀어지게” 하고 “구조주의

51) P. Ricoeur, *op.cit.*, 1975, p.289.

52) *Ibid.*, p.289.

53) *Ibid.*, p.289.

54) 정기철, 『상징 은유 그리고 이야기』, 문예출판사, 2002, p.91.

55) 리코르르는 『텍스트에서 행동으로』(P. Ricoeur, *op.cit.*, 1986, p.102.)에서 이 지시 이론을 텍스트성(textualité)의 기준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축의 하나로 재론하고 있다. 이 책에서 지시 이론은 “텍스트의 세계(Le monde du texte)”라는 제목 하에 “세계를 투사하는 담화가 이루는 작품”이라는 주제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 *Ibid.*, p.112.

와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⁵⁶⁾ 역할을 한다. 이는 독자의 독서가 저자의 의도와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형상화 단계에서 독자가 수행하는 적극적인 역할 때문에, 텍스트의 구조가 낡는 의미는 그 자체로 완벽하지 못하다. 텍스트의 힘을 자신의 생활세계로 잇는 것은 독자의 역할이다. 즉, 주체의 개입 차단이라는 전제를 가진 구조주의와는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때 구조주의는 폐기되지 않고 활용된다. 텍스트를 구조로 보는 관점은 객관화 과정을 거치는 텍스트의 모습을 증명해준다.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적 관계⁵⁷⁾도 이런 텍스트의 역할을 전제로 한다. 이 변증법적 관계를 제시하는 리콤프의 방식은 일종의 이중검증이였다. 이 검증은 설명과 이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양자가 필요 충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⁵⁸⁾

이해에서 설명으로의 진행은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⁵⁹⁾ 두 주체 사이에 텍스트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할 때, 구조주의가 맡은 역할은 텍스트를 저자의 의도로부터 분리하는 ‘객관화의 기능’⁶⁰⁾이다. 구조주의적 관점이 텍스트에 적용되면 실물지시^{référence ostentive}가 정지 epoché되고, 텍스트는 “이제 더 이상 외부가 없고 내부만 있게 된다.”⁶¹⁾ 설명에서 이해로의 방향은 지시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하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

56) *Ibid.*, p.112.

57) 딜타이는 설명을 자연과학의 방법론으로, 이해를 인문과학의 방법론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을 적용하였다. 리콤프는 설명의 방법을 구조주의적 텍스트 분석에서 찾음으로써 설명의 방법을 인문학에 빌려 올 필요가 없음을 역설했다. 설명이 텍스트의 구조적 방식이라면, 이해는 텍스트를 해석하여 그 지시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호교류야말로 텍스트의 온전한 의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리콤프의 이러한 시도가 가지는 의의는 구어와 전혀 다른 텍스트적 언어행위를 성공적으로 묘사하였다는 데 있다. *Ibid.*, pp.161-163.

58) 이에 대해서는 김휘택, 「폴 리콤프의 설명과 이해관계의 이중검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0권, 2009.를 참조할 것.

59) P. Ricoeur, *op.cit.*, 1986, p.199.

60) 리콤프는 구조분석에 대해서, 구조분석이 기능이 아니라면, “하나의 생명 없는 유희나, 분열적인 대수학 같은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평했다. *Ibid.*, pp.207-208.

61) *Ibid.*, p.206.

텍스트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한 결과이고, 텍스트를 누가 썼는가에 상관 없이 텍스트를 읽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제 텍스트의 의미는 구조의 효과가 아니라, 주체가 개입하면서 텍스트의 의미가 밖으로 분출되는 순간을 통해 얻어진다. 리콤폴르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⁶²⁾

텍스트가 의미sens에서 지시référence로 이동하는 것, 즉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부터 텍스트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가로 텍스트가 이동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⁶³⁾

설명에서 이해로의 방향은 “한정된 상황들의 의미론une sémantique des situations limites”⁶⁴⁾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시’와 ‘한정된 상황들의 관계’가 연결될 때 이는 구어 의사소통의 지시에 관련하여 등장하는 용어들이 아닌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 리콤폴르는 『살아있는 은유』에서 일차 지시와 이차 지시의 구분을 제시하였지만, 『텍스트에서 행동으로』에서는 실물적 지시 référence ostentive⁶⁵⁾와 비실물적 지시référence non ostentive⁶⁶⁾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의 지시는 새로운 이론적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비실물적 지시와 이차 지시의 차이는 지시에 대한 독자의 역할에 의해 드러난다. 『살아있는 은유』에서 지시 문제는 텍스트라는 말화체 자체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구조적 관점에서의 텍스트의 지시 정지는 이차 지시와 비실물

62) 리콤폴르는 의미의 층위들을 상정하고, 각 층위에 해당하는 의미론의 구분을 주장했다. “표면 의미론une sémantique de surface”과 “심층 의미론une sémantique de profondeur”이 그것이다. 텍스트의 구조 차원에서 발생하는 의미는 표면 의미론에서 논의된다. 심층 의미론은 독자가 독서행위를 통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생활세계에 끌어들었을 때 발생하는 의미이다. 즉, 표면 의미론에서 심층 의미론의 진행은 이해에서 설명으로의 진행을 의미적 차원으로 다시 말한 것이다. 두 의미론은 단절적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지시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 *Ibid.*, pp.206-207.

63) *Ibid.*, p.208. 여기서 의미sens는 구조적 입장에서의 의미를 말하고, 지시는 독자의 작용을 통해 얻는 의미를 가리킨다.

64) *Ibid.*, p.207.

65) *Ibid.*, p.206.

66) *Ibid.*, p.208.

적 지시의 공통적 기반이다. 비실물적 지시는 텍스트의 의사소통을 발화행위로 규정하게 하면서, 구어와의 차별성도 드러내 준다. 텍스트가 생산된 담화의 최초상황은 텍스트의 최종 의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비실물적 지시는 저자의 의도와 텍스트를 분리하고, 독자의 세계와 텍스트의 세계가 만나면서 생기는 의미 폭발의 가장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기제가 된다.

『시간과 이야기 *Temps et récit*』는 텍스트 의사소통에서 지시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⁶⁷⁾ 여기서 지시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우선, 리코르는 지시를 통해 구어와 문어의 소통 기제를 일반화하려고 한다. 지시가 구어와 문어에 상관없이 언어행위로 발현된 것이라는 상식으로부터 시작하는 논의이다. 이 논의는 리코르는 재형상화가 지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정의⁶⁸⁾한 데서 시작한다. 재형상화는 독서행위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시 역시 재형상화가 이루어질 때 작용하는 한 기제일 뿐이다. 따라서 보아 할 것은, 재형상화에서 지시가 하는 작용이다. 리코르는 재형상화를 통해 역사 이야기와 허구 이야기를 서로 대조되는 두 대상이 아니라, 결국 서로에게 기대고 있으면서, 같은 기제를 통해 세상에 닿는 언어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여기서 지시의 역할을 주목해보자.

텍스트를 통해서라면, 독자와 저자의 지시는 분리된다. 이는 구어와 문어를 구분하는 특성이다. 리코르는 이런 구분에서 나아가 보편적인 시각에서 지시 문제에 접근한다. 지시가 언어행위와 세계의 만남이라는 보편성을 통해서 설명된다는 것이다. 다음 언급을 보자.⁶⁹⁾

담론의 이런 지시 대상이 목표로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건적 특성인 동시에 대화적 기능 작용이다. 완전한 사건이란, 단지 누군가 발언을 하고 대화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경험을 언어로 옮기고 그것을 타인과 함께 나누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67) P. Ricoeur, *op.cit.*, 1983, pp.117-124.

68) “우리는 재형상화 문제를 역사와 허구가 교차하는 지시의 문제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P. Ricoeur, *op.cit.*, 1985, p.147.

69) P. Ricoeur, *op.cit.*, 1983. p.118.

결국 언어행위langage는 구어든, 문어든 새로운 경험을 재현하고, 타인에 전달하는 매개 기능을 수행한다. 벤베니스트의 담화이론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벤베니스트는 구어 대화 상황 하에서의 상호주관성을 강조하였지만, 리코르르는 벤베니스트 이론에서 언어가 수행하는 매개 역할에 주목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⁷⁰⁾ 리코르르는 언어행위라는 큰 틀 안에서 구어와 문어를 동일시한다. 결국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경험을 재현하고, 전달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구어와 문어의 일반화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독자가 행하는 재형상화도 의사소통의 능력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데 있다.

즉 의사소통 능력과 지시 능력은 동시에 상정되어야 한다. 모든 지시는 공지시co-référence, 즉 대화 논리적dialogique이고 대화적dialogale인 지시이다. [...] 독자가 수용하는 것은 작품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가로질러 작품의 지시, 다시 말해서 언어행위로 옮겨진 경험이며, 궁극적으로 작품이 그 앞에 펼쳐놓는 세계와 그 시간성인 것이다.⁷¹⁾

재형상화 안에는 언어행위를 실재réel 혹은 현실réalité과 관계 맺게 하는 지시의 역할이 존재하며, 모든 텍스트가 이 과정을 거친다. 텍스트 성격의 일반화를 리코르르는 역사와 허구의 재형상화 역할을 통해 설명한다. 위에서 언급한 역사와 허구의 교차라는 것은 역사와 허구 모두 지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역사는 사실에 근거한다. 사건들을 언어로 완벽히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구성 방식을 따른다. 사건들은 실천적 이해력과 서술적 이해력을 거치면서 이야기가 된다. 실천적 이해력이란, 실제 사건 속에서 이야기의 구성 요소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서술적 이해력을 통해 이 요소들은

70) 리코르르는 『살아있는 은유』에서 지시 문제를 위해 에밀 벤베니스트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특히 벤베니스트가 주장했던 의미론과 기호학의 구분을 통해서 기호의 분류방식인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이때 의미의 문제는 통합관계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 생각이 가능한 것은, 기호들이 자신의 의미를 발현할 때는 통합관계라는 전체 안에서 기능하고, 이 전체가 매개적 역할을 할 때이기 때문이다. P. Ricoeur, *op.cit.*, 1975, pp.274-275.

71) P. Ricoeur, *op.cit.*, 1983. p.119.

통사 규칙에 따라 이야기가 된다. 사건이 이야기가 되는 과정은 사건이 어떤 지향성(intentionnalité)을 통해 재구성 되는 것이다. 이는 역사가 실제 사건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며, 허구를 만드는 이야기 구성의 도움으로 탄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야기는 “마치~와 같은 것(comme si)”⁷²⁾의 왕국을 여는 것이다. 허구 이야기가 그럴 듯해지고, 독자의 기대지평을 충족하려면, 역사의 지시적 특성을 이용해야 한다. 독자가 허구 이야기에 몰입하려면 역사의 여러 자료, 즉 시공간적 지시를 포함해야 한다. 역사와 허구는 이렇게 상보적인 관계를 가진다.

재형상화에서 지시의 역할은 언어행위가 세계를 지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독서의 힘이 없다면, 지시는 의미 없는 것이 된다. 텍스트가 지시하는 삶이 독자가 텍스트에서 얻는 의미가 아니다. 독자는 독서행위를 통해 ‘변화된 삶, 다른 삶’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과 만들어내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 지점, 그러니까 재현성이라는 개념도 어쩌면 재기술이라는 개념도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이제 칸트가 말한 생산적 상상력이라는 의미대로의 생산적 지시로 어떤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재형상화의 문제는 결정적으로 지시라는 용어를 벗어나야만 한다.⁷³⁾

이는 지시 개념의 초월이나 폐기가 아니라 지시 개념의 불충분 함을 뜻한다. 지시가 ‘생산적 상상력’이라는 독서행위와 결합했을 때 완전한 재형상화가 됨을 뜻하는 것이다.

『시간과 이야기』의 지시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자. 우선 지시는 인간의 경험을 전달하고 매개하는 언어행위라는 측면에서 모든 텍스트와 구어에 적용 가능한 것이다. 물론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텍스트와 구어 의사소통에 지시가 기반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구어와 텍스트 간의 철저한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시를 통해서

72) *Ibid.*, p.101.

73) P. Ricoeur, *op.cit.*, 1985, p.229.

텍스트들 내부에 있는 장르의 구분도 모호해 질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허구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가 지시를 통해서 서로 기대고 있다는 데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지적해야 할 것은 재형상화라는 큰 틀 안에서 지시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며, 텍스트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에 텍스트가 자신의 경계를 초월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기제라는 점이다.

5. 텍스트 의사소통의 모델

우리는 텍스트 의사소통의 모델을 작성하기 위해 앞서 두 가지 선결과제들을 이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두 가지 선결과제는 주체와 텍스트의 관계와 텍스트의 지시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우선 주체와 텍스트의 관계에서, 텍스트 의사소통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대칭적으로 위치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이들이 처한 대화 상황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저자에서 분리된 텍스트가 그 의미 결정을 단지 독자에게 맡겨 두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즉, 텍스트는 독자의 해석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물체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인 힘을 가지고 독자의 해석행위에 대응하는 일종의 능동적 주체이다.

다른 한편으로 텍스트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으로 자리매김 하려면, 텍스트와 관련된 주체의 지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우리는 리코르의 여러 저서들을 일별하면서, 우선 텍스트의 의사소통은 독자가 현동화하는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이 의사소통은 이야기 한 것처럼 전적으로 독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작업이 아니라 텍스트의 내적인 힘을 독자가 자신의 생활 세계에 끌어들이는 작업이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러한 텍스트 의사소통에서 저자와 독자가 가지는 공통된 지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지시의 분리’로 설명하고자 했다. 텍스트는 근본적으로 일차 지시와 이차 지시의 두 지시를 가지고, 또한 저자와 독자의 지시가 분리되는 의사소통을 매개한다.

이 두 과제 모두 구어 의사소통 모델과 텍스트의 의사소통 모델의 차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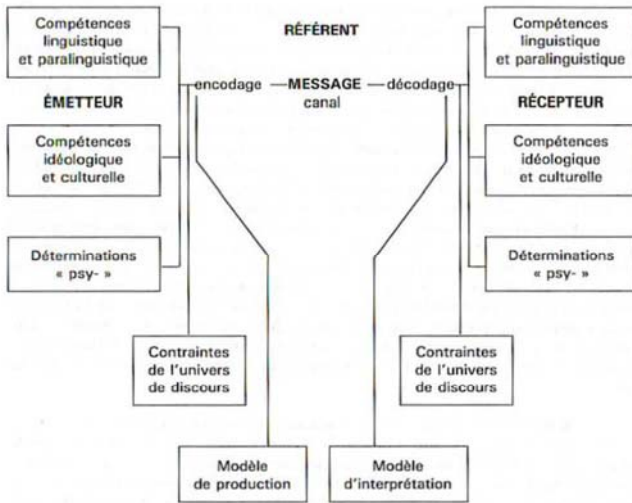
부각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다. 이 차이를 통해서 텍스트 의사소통에 고유한 모델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조된다. 그리고 텍스트 의사소통과 관련한 이론적인 문제들을 선결했을 때, 이후 작성될 모델의 정당성은 더욱 확고해 질 것이다. 본격적인 모델 작성을 위해서, 기존의 제시되었던 구어 모델들을 일별해 보고, 이들이 텍스트 의사소통 모델을 위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텍스트 의사소통 모델에 적합한 모델들을 종합하여,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델을 작성하겠다.

1) 저자와 독자의 균형을 중심으로 한 모델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텍스트 의사소통은 독자가 현동화 한다. 반면, 구어 의사소통의 모델은 독자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언어학에서 의사소통 모델의 전범을 제시한 야콥슨의 모델도 대화자가 대화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방적unilatéral인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⁷⁴⁾ 벤베니스트의 이론에서 의사소통은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é의 지배를 받는다. 상호주관성 하에서 /나je/는 잠재적인 /너tu/이다. 그리고 /너/역시 잠재적인 /나/이다. 따라서 대화상대자는 언제든지 대화자가 될 수 있고, 대화자가 가진 지식을 이어 받는다.⁷⁵⁾ 이때 두 대화자는 대화 상황 속에서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화상대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이론적 접근이 없었다. 카트린 케르브랏-오렉기오니Catherine Kerbrat-Orecchioni는 의사소통 도식을 제시하면서, 대화상대자에게 대화자와 동일한 언어능력compétence communicative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다음 도식을 보자.

74)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야콥슨의 모델은 빌리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야콥슨 여기에 접촉contact, 코드code, 문맥contexte를 더해서 의사소통의 상황을 좀 더 섬세하게 만들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의사소통 내에서의 대화상대자의 역할이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는다.

75) E. Benveniste, *op.cit.*, 1966, pp.258-266.



<도식2>⁷⁶⁾

오렉기오니는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수신자의 성격을 “수동적”⁷⁷⁾이라고 규정하였다. 오렉기오니가 제시한 도식에서 대화상대자는 대화자와 같이 언어적 능력, 언어외적 능력, 여기에 문화적 능력까지 부여받는다. 이는 대화자들에 대한 동등한 위상 부여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동등하다는 것이 이 두 주체 간의 역할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 텍스트와 관련된 이론들에서도 저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언어학에서 모델화한 의사소통의 형태를 그대로 텍스트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오렉기오니는 저자와 작품 내 화자, 독자와 작품 내 이야기 수용자를 따로 분리하여 상정하였다. 이는 언어학에서는 다성이론polyphonie이나 문학 이론에서는 내포된 저자auteur impliqué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렉기오니는 다음과 같이 도식과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다.

76) C. Kerbrat-Orecchioni, *L'énonciation : de la subjectivité dans le langage*, Paris, Paris, Armand Colin, 1980, p.19.

77) C. Kerbrat-Orecchioni, *Les interactions verbales*, tome I, Paris, Armand Colin, 1990, p.25.



〈도식3〉

발화자는 텍스트 외부 주체(저자)와 텍스트 내부 주체(내레이터, 즉 이야기하는 내용을 책임지는 자)로 나뉘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제 독자도 발화체 속에 명시적으로 혹은 비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가상의 독자와는 구별된다.⁷⁸⁾

위의 도식은 저자가 내레이터로서 작품 내에 존재하고 내레이터의 상대자가 독자에게 연결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작품 내의 저자를 작품 속에서 이야기 하게 함으로써, 저자의 의도가 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텍스트 의미를 저자가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위에서 우리는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가 예술작품의 열린 성격이 작가나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보았다. 여기서 바로크 시대에 대한 에코의 평가를 다시 살펴보자. 그는 “바로크 시대 사람들은 이제 막 스스로 부정하고 나온 고전적인 르네상스 형식의 정적이고 확정적인 규정성을 부정”⁷⁹⁾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바로크 정신이 근대 문화와 감수성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최초로 우주의 질서와 세계의 모든 존재의 불멸의 모습을 반영하는 규범에서 벗어나와 대상 자체가 끊임없이 유동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창조적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세계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⁸⁰⁾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대상에 따른 작품의 열린 성격이 아니다. 에코는 이렇게 작품이 열려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론적이고 **정신적으로** 협조”⁸¹⁾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소비자들의 ‘정신적 협조’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에코는 독자들의 정신적 협조가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와 작가들의 저작 방식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

78) *Ibid.*, p.171

79) 움베르토 에코, *op.cit.*, 1995, p.49.

80) *Ibid.*, 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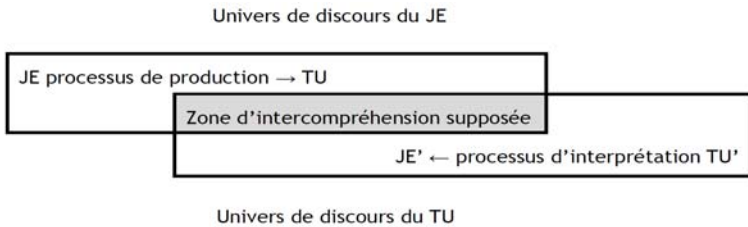
81) *Ibid.*, p.57. 강조는 원문을 따름

고 생각했다. 이는 우리가 위에서 정리했던 텍스트 의사소통의 요건과는 맞지 않는다. 상기한 바대로 독자는 작품을 통해 저자나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세계와 텍스트의 세계를 교차한다.

이제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론들에서 어떻게 독자에 대한 이론들이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자. 이 이론들이 어떻게 저자나 발화자 위주의 이론들에 대응하고 있는지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텍스트 의사소통 모델의 형태적 기반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의사소통에서 독자의 위상 강화

언어학에도 대화상대자를 중요하게 다룬 이론들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도 위에서 언급한 야콥슨의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독자의 세계를 인정하거나, 독자의 해석적 입장이나 발화상황을 의사소통 모델에 도입한다. 파트릭 샤로도Patrick Charaudeau의 도식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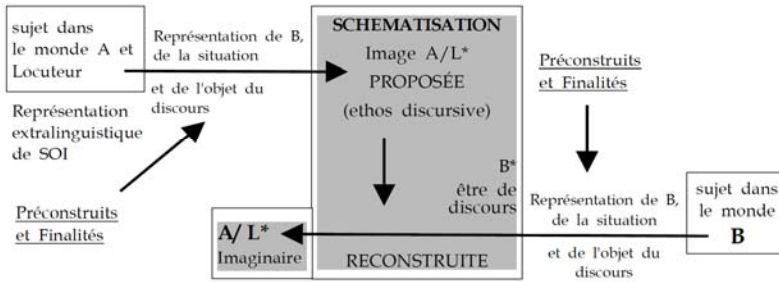
〈도식4〉⁸²⁾

샤로도는 대화상대자인 /너TU/의 해석 과정processus d'interprétation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대화자들 간의 상호이해의 영역zone d'intercompréhension supposée을 통해 대화상대자의 능동적인 대화 참여를 묘사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담은 도식화schématisation 개념⁸³⁾을 이용해 의사소통

82) P. Charaudeau, *Langage et discours : éléments de sémiolinguistique*, Paris, Hachette, 1983, p.39.

83) 이 도식화의 개념은 위에서 말한 리콥르의 도식화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도식을 상징하였다.⁸⁴⁾



〈도식5〉

여기서 A/L*은 발화자가 발화행위 시 제시하는 자신의 이미지이다. 이와 같이 발화자가 의도한 텍스트의 내용과 목적 Préconstruits et Finalités은 그 만의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진행 방향은 서로 마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한다. 발화자의 것이 텍스트를 향해 있다면, 독자 B는 자신이 생각한 가상 저자 A/L* imaginaire를 향하고 있다. 구어에서는 “성실성의 조건 la condition de sincérité”에 의해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지만 텍스트의 경우에는 다르다. 아담은 “문어에서, 특히 허구의 예술작품을 생산할 때, 작가라는 인물과 독서 중에 만들어진 에 토스를 구별하지 않으려는 유혹은 고지식한 비평의 많은 실수 중 하나”⁸⁵⁾라 고 말했다. 아담이 비판한 비평 방식은 독서를 편협하게 만들고, 독서의 의도 가 저자의 흔적을 텍스트 속에서 찾으려는 데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여기서 텍스트 의사소통의 모델을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독자와 저자 의 비대칭적인 성격이 도식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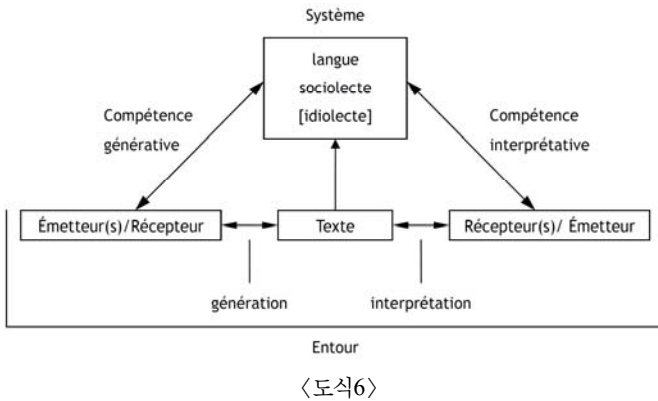
아담은 도식화를 통해 텍스트와 담론의 구분을 없애려고 했다. 아담은 이 두 언어 단위는 모두 발화자가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화용론적 입장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J.-M. Adam, *op.cit.*, 1999, p.102.

84) *Ibid.*, p.115.

85) *Ibid.*, p.115.

적인 삼각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모델에서는 볼 수 없는 텍스트 의사소통의 고유한 성격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수와 라스티에 François Rastier는 텍스트 자체를 염두에 둔 의사소통 도식⁸⁶⁾을 제시하였다.



이 도식의 특징을 주체의 기능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자. 여기서 주체들은 기능적으로 정의되며 행위자acteurs로 칭해진다. 이들은 반드시 구체적인 인물일 필요는 없으며 “사회적 관계들의 기호학에서 역할의 집합”⁸⁷⁾이라고 규정된다. 한 주체는 텍스트의 저자도, 수용자도 될 수 있다. 즉, 주체는 행위자로서 언어행위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자신의 위상이 결정된다. 텍스트 의사소통에서는 수용의 결과가 창조로 이어진다. 구어 의사소통에서 수용자는 발화자의 말을 수용하고 다시 발화자에게 대응한다. 하지만, 텍스트 의사소통에서 수용자는 텍스트를 읽고, 그 발화자인 저자에게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놓인 상황이나 자신의 생활세계로 텍스트의 내용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수용자의 독서는 저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새로운 텍스트의 창조와 맞물려 있다.

86) F. Rastier, *op.cit.*, 1989 p.47.

87) *Ibid.*, pp.47-48.

다음으로, 라스티에는 이 도식을 통해 주체를 심리적, 사회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주체에게 이데올로기적이고 문화적인 능력도 함께 부여한다. 이때, 발화자와 수용자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행위자로 자리 매김하게 되며, 기존의 구어 의사소통 모델의 단선적인 unilatéral 성격은 이 모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 텍스트의 역할을 주목해 보자. 텍스트를 통해서 주체들은 두 가지 위상을 가지게 된다. 라스티에에 따르면

텍스트는 자신의 저자에게 작용한다. 이때 저자는 텍스트를 생산하면서도, 해석한다(퇴고나 재독서, 등). 그리고 독자는 텍스트에 작용한다. 그 텍스트를 다시 생산하면서 말이다. 독자는 텍스트를 예상하고, 텍스트를 완성하고, 텍스트를 활성화 해낸다.⁸⁸⁾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작용을 매개하지 않는다. 텍스트는 저자, 독자와 서로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 “텍스트와 주체들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능동적이거나 순수하게 수동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 관계는 저자와 텍스트, 독자와 텍스트 간의 개별적 상호행위로 여겨진다.”⁸⁹⁾

이 도식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목할 점은 텍스트의 기능 강화에 있다. 앞서 본 오렐기오니의 의사소통 모델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만, 텍스트의 기능은 소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라스티에의 도식은 텍스트의 언어적 매개 기능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본, 텍스트의 객관화의 작용과 유사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 공간의 역할 복원은 텍스트와 주체들의 관계 설정과 저자와 독자의 지시 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위에서 제시한 <도식1>은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도식은 위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대로 텍스트라는 매개체를 고려한 발신자 émetteur와 수신자 récepteur의 상황 분리를 묘사한다. 이 도식은 <도식6>의 보충적인 도식으로 제시된 것인데, 여기서는 특히 텍스트가 발신자와 수신

88) *Ibid.*, p.48.

89) *Ibid.*, p.48.

자를 연결하기보다 오히려 내용 1과 내용 2의 단절적 상황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절적 상황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시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 앞에서 제시한 의사소통의 모델들을 종합하여 텍스트 의사소통의 모델을 구성해보자.

3) 텍스트 의사소통의 모델 - 도식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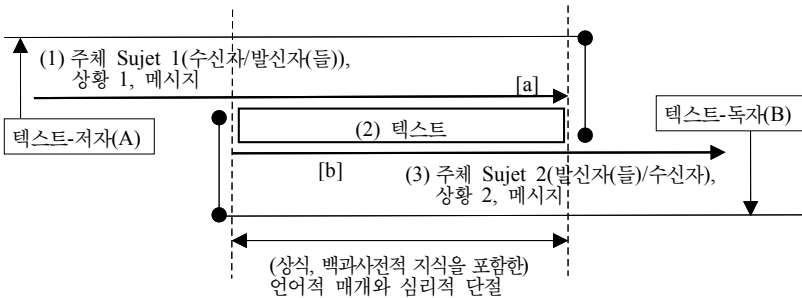
샤로도부터 라스티에의 모델에 이르기까지 도식을 점검하면서, 텍스트 의사소통의 도식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사항들을 보도록 하자. 우선 샤로도 도식(<도식4>)에서 수정해야 할 것은 저자와 독자가 공유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샤로도의 도식은 저자와 독자의 행위, 즉 텍스트 생산과 독서가 교차되는 모습은 잘 드러내고 있지만, 텍스트의 역할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 우리는 지시의 분리에서 텍스트가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을 단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텍스트 부분은 도식에서 반드시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아담이 제시한 <도식5>는 발화체 속에 주체가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이를 독자가 해석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텍스트와 담화는 도식화를 통해서 일반화 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도식 속에 독자가 보는 발화자의 가상 이미지의 공간을 두어 독자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의사소통의 모델은 여전히 구어와 텍스트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텍스트의 독자들은 텍스트 속에서 저자의 이미지만을 찾지는 않는다. 그것은 독서행위가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하나일 뿐이다. 독자가 읽는 저자의 모습 역시 일종의 자신의 생활세계와 관련된 해석된 이미지이다.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은 저자와 독자의 단절과 지시적 분리였다. 이러한 텍스트를 통한 저자와 독자의 단절 양상은 아담의 모델에서 저자와 독자가 차지하는 비대칭적 위치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위치를 도식에서 가시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델 작성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도식6>으로 제시한 라스티에의 모델은 야콥슨의 삼각 형태를 그대로 받

아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삼각 형태는 라스티에가 텍스트 의사소통 모델에서 아직까지 저자와 독자와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저자와 독자의 비대칭적 관계를 보여주는 아담의 모델이 라스티에의 모델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텍스트 의사소통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라스티에의 모델에서 교훈이 될 만한 점은, 저자와 독자 소통을 텍스트가 전적으로 매개하고 있다는 점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강조했던 저자와 텍스트의 단절 사항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텍스트 수용자récepteur에게 발신자의 역할émetteur의 역할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의 수용이 수동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수용자가 다시 새로운 발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라스티에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게 느껴진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과 앞에서 언급했던 지시의 문제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을 작성할 수 있다.



〈도식7〉 텍스트 의사소통의 모델

위 모델은 저자, 텍스트, 독자 단계를 각기 (1), (2), (3)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리프르의 미메시스 세 단계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 세 단계 사이의 관계를 (A)와 (B)로 표시하였다. (A)는 텍스트와 저자의 관계를 나타내고,

(B)는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때 (A)와 (B)는 텍스트를 통해서만 매개된다. 이는 저자와 텍스트가 맺는 관계, 독자와 텍스트가 맺는 관계를 따로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감안한 것이다.

〈도식7〉이 반영해야 하는 사항들 중 중요한 하나는 저자와 독자의 비대칭성이다. 따라서 (A)와 (B)를 횡적으로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A)와 (B)를 횡적으로 배치한 것은 저자와 독자가 텍스트를 만나는 순간이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두 공간을 일직선 위에 두지 않음으로써, 텍스트 의사소통에서는 구어 대화 상황과 같이 수신자가 즉각적으로 발화자에게 대응할 수 없음을 표시했다. 이러한 비대칭적 형태는 기존 모델의 삼각형이나 일직선 형태들이 보여주는 대칭적인 성격과 차별화를 꾀한 결과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화살표 [a]와 [b]이다. [a]는 텍스트와 독자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b]는 저자와 텍스트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의 어느 곳인가를 향하고 있다. 이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지시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을 통해 도식은 텍스트를 통한 저자와 독자의 지시적 단절을 형상화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독자의 “전유appropriation”, “적용application” 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독자는 저자의 심리나 의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생활세계를 참조한다. 즉, 이 화살표의 표시는 텍스트 의사소통의 특징인 “비실물적 지시”를 반영하는 것이다.

텍스트 단계를 점선으로 강조하여 나타낸 것은 그만큼 텍스트가 의사소통에서 하는 작용이 저자와 독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텍스트는 언어를 사용한 결과물로서 저자의 의도를 여과하고 독자에게 새로운 행간의 의미를 제공하며, 독자가 자신의 생활세계의 의미를 텍스트에 첨가하게 만든다. 이와 함께, 텍스트는 과해석surinterprétation을 막는 최소한의 기반이 된다. 텍스트가 언어행위의 결과물이라는 것만으로 사회적 규약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는 사회적 상식과 백과사전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의 의미의 완전한 독점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이는 저자의 의도가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독자의 독서행위가 저자에 대한 심리적 추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도식은 아직 보충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독자의 다수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복수의 수용자를 전제로 했을 때, 해석의 여러 경향이 발생하며, 이중 어떤 것은 지배적 해석이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지배적 해석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주요한 해석의 경향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 가치를 가지면서 서로를 견제하거나 한 해석의 경향이 다른 해석의 경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의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다양한 해석의 경향들이 한 시대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어는 한 번 발화되고 나면 녹취나 기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라지고 없지만, 텍스트는 생명력이 구어보다 훨씬 강하다. 따라서 해석들은 한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시대에 걸쳐 계속된다. 시대별로 다양한 해석의 경향에 노출된 작품들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일컫는다. 위에서 말한 지배적 해석은 다음 시대에도 계속되리라는 법은 없다. 시대에 따라 텍스트가 주는 함의는 다를 수 있고, 다음 시대에는 다른 해석의 방식이 지배적 해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해석은 공시적으로도 다양할 수 있지만, 통시적으로도 다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해석들은 보통 해석적 텍스트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다. 독자들의 해석은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른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도 한다. 다양한 해석적 텍스트들은 서로 단절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상당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 텍스트들은 서로 간에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최근 언급되는 담론의 조직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고는 구어와 차별화된 텍스트 의사소통의 모델과 그 도식을 작성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언어학에서는 구어 의사소통이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의사소통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소통이 가지는 변별적 특성들을 다시 도출해 내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텍스트가 발화행위의 결과로서 위상을 인정받아야 했다. 이전에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던 텍스트 연구는 이제 텍스트 화용론적인 관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제 체계적인 이론적 기반을 가져야 한다. 텍스트 의사소통 모델에 필요한 이론적 요소들을 연구하는 일은 이 기반을 구성할 요소들을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텍스트 의사소통이 갖는 구어와 차별화 된 특징들을 찾았다. 텍스트 의사소통은 구어와 달리 독자가 현동화한다. 그러나 그 역할은 독자에게만 맡겨진 것은 아니다. 텍스트도 도식화와 전통성이라는 텍스트 외부를 향한 자신 만의 힘을 가진다. 독자는 독서행위를 통해 그 힘을 자신의 생활세계로 끌어들인다. 즉, 텍스트 의사소통에서 텍스트의 현동화는 독자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이 텍스트를 현동화 한다. 이러한 작용을 묘사하는데 있어, 저자와 독자의 비대칭성을 고려하고, 텍스트 단계를 독자적으로 배치하는 일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텍스트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텍스트의 지시가 가지는 특성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해야 했다. 텍스트와 관련된 주체들, 즉 저자와 독자는 서로 만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구어와 같은 대화자들이 공유하는 지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리콤프의 지시 이론을 도입하여 해결하였다. 리콤프는 저자와 독자의 지시를 분리했고 이를 비실물적인 지시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지시의 연구는 언어행위 전반으로 지시이론을 일반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텍스트 의사소통의 모델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간의 의사소통 모델과 도식들을 점검했다. 이들 의사소통의 모델들은 야콥슨의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구어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 텍스트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이 도식들을 보았을 때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저자와 독자가 서로 텍스트에서 직접 만난다는 설정이 도식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의사소통이 텍스트를 매개로 할 때, 저자와 독자는 동일한 의사소통 상

황을 공유하지 않으며, 서로가 참조하는 세계에 대한 지지도 다르다. 즉, 이제 저자와 독자는 일직선상에 놓일 수 없으며, 그것이 심리적이든 시간적이든 간에 다른 차원에서 언어행위를 수행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모델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의 역할 때문이다. 기존의 구어 도식에서 메시지의 역할이 수동적이고 그 기능이 축소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텍스트의 독특한 매개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는 텍스트 의사소통의 모델은 매우 차별화된 형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마지막으로 텍스트 의사소통의 도식을 제시했다. 그간 텍스트와 관련된 도식들이 여럿 제시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도식은 이것들을 완벽하게 보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구어 모델을 탈피하여 텍스트 의사소통의 이론들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도식 역시 상당수 보완할 점이 있다. 특히 독자의 복수성의 문제라든지, 해석적 텍스트들 간의 관계 등을 도식에 담을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보다 완성된 형태의 텍스트 의사소통의 모델과 도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를 진척하여 이론적인 엄밀성과 이를 적용할 예들이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텍스트, 저자, 독자, 텍스트 의사소통 모델, 도식

❖ 참고 문헌

- 김한식, 「이야기, 삶, 주체 - 자기의 해석학을 위하여」, 『프랑스학연구』, 제25권, 2003.
김휘택, 「폴 리콥르의 설명과 이해관계의 이중검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0집, 2009.

김휘택, 「폴 리코르의 이론에서 재형상화re-figuration의 개념」, 『한국프랑스학논집』, 74집, 2011.

움베르토 에코, 『열린 예술작품 : 카오스모스의 시학』, 조형준 역, 새물결, 1995.

이기언, 「해석학적 순환에 대하여」, 『불어불문학연구』, 74집, 2008.

이성만, 「텍스트 언어학의 방법과 과제」, 『한국학연구』, 23호, 2005.

정기철, 『상징 은유 그리고 이야기』, 문예출판사, 2002.

최성민, 「은유의 매개와 서사의 매체」, 『시학과 언어학』 제15호, 2008.

ADAM Jean-Michel, *Linguistique textuelle : Des genres de discours aux textes*, Paris, Nathan, 1999.

BARTHES Roland, *Le plaisir du texte*, Paris, Editions du Seuil, 1973.

BAYLON Christian et MIGNOT, Xavier, *La communication*, Paris, Nathan, 1994.

CHARAUDEAU Patrick, *Langage et discours : éléments de sémiolinguistique*, Paris, Hachette, 1983.

CHARAUDEAU Patrick, "Communication", in *Dictionnaire d'analyse du discours*, P. Charaudeau et al, Paris, Editions du Seuil, 2002.

ECO Umberto, *Lector in Fabula*, Paris, 1985.

JACQUES Francis, "Le mouvement du texte" in *Le texte comme objet philosophique*, J. Greisch éd., Paris, Beauchesne, 1987.

JAKOBSON Roman, *Essai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63.

KERBRAT-ORECCHIONI Catherine, *L'énonciation : de la subjectivité dans le langage*, Paris, Paris, Armand Colin, 1980.

KERBRAT-ORECCHIONI Catherine, *Les interactions verbales*, tome I, Paris, Armand Colin, 1990.

NEF Frédéric, "Notes pour une pragmatique textuelle: Macro-actes indirects et dérivation rétroactive", *Communications*, n°32, 1980.

RASTIER François, *Sens et textualité*, Paris, Hachette, 1989.

RICOEUR Paul, *La métaphore vive*, Paris, Editions du Seuil, 1975.

RICOEUR Paul, "The Metaphorical Process as Cognition, Imagination, and Feeling", *Critical Inquiry*, 5:1, 1978

RICOEUR Paul, *Temps et récit*, tome I, Paris, Editions du Seuil, 1983.

RICOEUR Paul, *Temps et récit*, tome III, Paris, Editions du Seuil, 1985.

RICOEUR Paul, *Du texte à l'action : Essai d'herméneutique, II*, Paris, Editions du Seuil, 1986.

RICOEUR Paul, "The hermeneutical function of distanciation", in *See Ricoeur*, 1995.

❖ ABSTRACT

Textual communication and its model

Kim Huiteak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the model of textual communication and its schema. To do this, we must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extual communication, different from that of the oral, because the model of communication is usually done to show the structure of oral communication. Moreover, we must clarify the status text as 'énoncé', that is to say product of the act of enunciation. The study of the text has now reached to achieve from the perspective of pragmatics, overcoming the structural point of view that dominates long text linguistics. And now, we need to enrich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pragmatics of text. Then the search of elements necessary to develop the model and pattern of textual communication can help to establish the elements used to form the theoretical bas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extual communication, we needed to explain the present communication by the position of reader and the point of view of textual reference. The schema that we proposed is not perfect, but there are still issues to think to complete it. For example, one must take into account the plurality of readers and reflec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retive texts in this schema, etc. This kind of problem is not only required to complete the schema but also to strengthen the basis of the theory of textual communication and the pragmatics of text.

Keywords

text, reader, author, model of textual communication, schema

386 비교문화연구 제27집 (2012.6.)

논문접수일: 2012. 05. 09

심사완료일: 2012. 05. 21

게재확정일: 2012. 05. 25